

공동주택 시설공사 전문가 기술자문 지원

도의회 조동용 의원,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조례 발의 도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 목적으로 대표발의

공동주택 시설공사 시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대표발의의 때 앞으로 관리비 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건축물의 약 64%가 사용연수 15년을 초과한 상태로 이들 공동주택은 해마다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각종 시설공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상 용역

의 주체인 입주대표회의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관리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시설보수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의 검토 및 작성에 대해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조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해야 하며, 기술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술자문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업무담당 공무원은 자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으며 20일 본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가습기살균제 도내 피해자들, 조배속 예비후보 지지 선언

가습기살균제 전북지역 피해자 및 단체(대표 이요한·박경환·최상규)들이 민생당 조배속 예비후보(익산출) 지지를 선언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부도덕한 기업도, 허가한 정부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국회에 조배속 의원이 있어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며 지지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각 정당 등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실질적 피해구제를 요구했으나 호소를 들어준 것은 조배속 국회의원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배속 의원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피해자 단체들과 공동으로 만들어 대표 발의, 지난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키며 피해자들의 10년 한恨을 풀어줬다고 조 후보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조 후보가 거대 기업과 정부 앞에서 피해자이면서 약자였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로했던 국회의원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지역 유권자들에 당부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는 사망자가 1,528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사회적 대참사였다. /특별취재반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이수진 "전주대첩으로 위대한 도시 실현"

미래통합당 이수진 예비후보(전주출)가 "미래비전과 통합열망을 담아 총선에 나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겠다"며 "위대한 전주를 위한 개혁보수 재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전주데이터센터 유치 ▲대한방직부지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같은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특별취재반



김성주, '전북 번영, 위대한 전주 5대 비전' 공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전주출)가 '대한민국과 전북의 번영, 위대한 전주를 위한 5대 비전과 약속'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2차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먼저 세계가 주목하는 금융중심지 전주 만들기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2번째 비전이자 핵심공약은 전주산업단지를 기존 제조업과 탄소소재 등 최첨단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전복의 산업중심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건강도시 건설 ▲한류의 분향, 문화 생태 관광거점도시 건설 ▲자가용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 등을 내걸었다. /특별취재반



신영대, 민주 군산조선회 새가동 지원 특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예비후보(군산)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회 새가동 지원 특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당직 임명을 통해 당의 주요 구성원임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역할에 맞는 비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 예비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회 새가동을 위해 군산조선회 새가동 추진단장을 임명해 군산시와 협력해 추진하고 정부의 해양선박, 해군 수송함 등 공공발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김관영 '스마트 도시 거듭나는 군산' 공약 발표

무소속 김관영 의원(군산)이 디지털 문해(文解)센터와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는 군산' 공약을 내놴.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군산을 미래형 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문해센터 건립 ▲스마트 시티를 위한 행정 전산망 통합 운영 방안 마련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 추진 ▲국제데이터센터(IDC) 유치 및 관련 인력 양성 등이다.

김 의원은 "정보격차를 줄이고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 군산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마트 도시로 변모시켜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취재반



한병도, '총선 압승 결의' 선대위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익산출)는 지난 18일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4·15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익산을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김형중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고문단, 협의회장단, 상임자문단, 직능특보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주성, 황현, 전완수, 문효숙 위원장이 임명됐다.

한병도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익산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대통령과 한 팀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만이 익산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한 국정경험을 익산 발전을 위해 온전히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19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준비생을 비롯해 관광업, 농업, 요식업,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 19에 대한 과도한 불안심리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예비후보는 "국회가 코로나 19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에 대한 피해 및 자금 지원을 늘렸다"면서 "조금이나 어려운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당선이 되면 행정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회의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책선거 홍보와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일 도내 시·군 공용시외버스터미널 14개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20개소에 X-배너 등을 설치했다.

"코로나 이기고... 투표 참여 다지고..."

전북도 선관위,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너 시설물 설치 유권자들에 최대한 선거정보 많이 노출시켜 관심 환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책선거 홍보와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일 다중이용시설 및 유관 기관 민원창구에 배너 시설물을 설치했다.

도 선관위는 선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

하고 투표율을 저하가 염려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도내 시·군 공용시의 버스터미널 14개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20개소에 X-배너를 설치하고,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유관 기관 민원창구에 미니배너 1500개를 설치해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선거정

보를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면 홍보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시설물이나 온라인 홍보를 더 강화해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팸플릿 / 리플릿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